

한국 서비스 수출 비중 15%

2014년 3분기 누적 기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제조업 중심 정책 개선 통해 서비스업과의 균형 성장 꾀해야”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원의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분기 누적 기준 한국의 총 수출 중 서비스 수출 비중은 15.1%로 OECD 국가 평균인 29.5%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06년 572억 달러에서 2014년 1121억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2006~2014년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874억 달러로 OECD 평균 884억 달러에 못 미친다.

한국의 OECD 내 상품 수출 순위는 49위지만 서비스 수출 순위는 12위 밖에 되지 않는다.

서비스 수출 증가율도 OECD 평균에

비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2006~2014년 연평균 8.8% 증가해 OECD 평균인 6.2%보다 높았다. 그러나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 한국 서비스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이전 5년(2006~2010년) 평균인 9.8%에 비해 2.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6.3%에서 6.1%로 0.2%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서비스 수출이 둔화되며 서비스 수지 적자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2006~2014년 평균 9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OECD는 평균은 105억 달러 흑자였고 2009년 이후 흑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차별적 지원 정책 개선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OECD 국가 대비 비교 열위인 금융, 기타사업 서비스 등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스마트 서비스와 같이 제조와 서비스의 연계성 강화, 신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 수출 확대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연구원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하고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도 강화해 내수 시장을 기움으로써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다자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주 기자



모빌에 집중하는 아기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서울 베이비 키즈 페어를 찾은 엄마와 아기가 모빌을 살펴보고 있다. 금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임신부·태교용품 등을 포함한 출산용품과 영·유아 관련 교육, 식품, 소품 등 140개사 300여 브랜드가 참가한다.



이스타항공 화이트데이 기내 이벤트 행사

이스타항공이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기내에서 특별한 추억을 제공 한다. 이스타항공은 14일 국제선 일부 편 항공기 기내에서 객실승무원들의 다양한 기내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

항공편은 인천발 나리타(ZE601편)행, 인천발 오키나와(ZE631편)행, 인천발 방콕(ZE511편)행, 인천발 코타키나발루(ZE501편)행이다.

이스타항공은 탑승권 승객 모두에게 화이트데이를 상징하는 기념 사탕을 제공하며, 각 편당 승객들이 참여하는 기내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느린 우체통 추억 이벤트를 통해 탑승 손님들이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적을 수 있는 엽서를 제공하여 40일 후 수신자가 받을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엽서 이벤트 고객이 인증샷을 찍은 후 본인 SNS와 이스타항공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 등에 참여 시 이스타항공 로고상품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기내에서 화이트데이의 달콤한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광명 기자

‘CEO명품아카데미’ 실전경영 과정 모집

전북중진공, 21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는 호남연수원에서 개강하는 '제14기 CEO명품아카데미 실전경영 과정'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CEO 또는 임원이며 이달 21일까지 선착순 40명에 한해 접수를 받는다.

교육은 이달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10회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실전경영 과정은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재무, 조직관리, 실전마케팅, 인재육성 등의 내용으로 꾸려졌다.

교육은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사례연구,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개강식에서는 '신 555(FTA와 중국을 내수시장으로)'라는 주제로 KD퍼워 박기주 대표의 특강도 진행된다.

연수비는 150만원이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7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062-250-3021, 3066)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명 기자

군산컨테이너터미널 흑자경영 시동

김철성 신임 대표이사, 시 방문 경영정상화 방안 설명

지난 11일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의 김철성 신임 대표이사가 군산시를 방문해 GCT(주) 경영정상화 방안을 설명했다.

GCT(주)는 전북도 군산시, C대한통운(주), 세방(주) (주)선광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부두운영회사로 지난 2004년 7월에 설립되어 전라북도 유일 무역항인 군산항의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동량 감소로 적자가 누적되고 자본이 잠식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취임하게 된 김 신임대표는 올해를 GCT(주) 수지균형 실현 원년으로 삼고자 신규항로 개설, 냉동창고 신축, 마케팅 활동 강화 및 주주사자분금 증자를 통한 재정확충으로 GCT(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

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GCT(주)에 취항하고 있는 동영해운(주)은 오는 3월 말 군산~남보~상해 항로를 신규로 개설하고 기존에 취항하고 있는 군산~대련 군산~일본 항로에 투입하고 있는 선박의 규모를 기존 47TEU급에서 1000TEU급으로 확대하는 등 군산항을 동영해운(주)의 주요 환적기지 로 활용할 계획으로 군산항의 컨테이너화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신임 대표이사는 전국 컨테이너터미널 CEO 중 최초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됐으며, 해양수산부에 30여 년간 근무하고 직전 GCT(주)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GCT(주)의 문제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문정근 기자

남원농어촌공

‘공안마을권정비’ 본격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3월 중 고운항센터와 두레보금자리 착공을 시작으로 공안마을권역종합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고운항센터와 두레보금자리에는 교육실이 들어서 주민들의 복지 및 체험객들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남원시로 부터 위탁받아 남원시 운봉읍에 47억원을 투입하여 ‘공안마을권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올해로 3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공안마을을 유경우 추진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안마을권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남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등 관련 기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 ‘에코시티 더샵 2차’ 모델하우스 오픈

포스코건설, 전용면적 84~117㎡ 702가구 · 15일~18일 청약접수

포스코건설은 지난 11일 전주 에코시티 더샵 2차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에코시티 더샵 2차는 분양료로 한 에코시티 더샵 1차와 함께 총 1,426가구 규모의 더샵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에코시티 공동 10블록에 조성되는 에코시티 더샵 2차는 지하 1층, 지상 29층 6개 동으로 전용면적은 84~117㎡이며 총 702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84㎡ 382가구, △100㎡ 166가구, △117㎡ 154가구로 구성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735만원 대이다.

전주 에코시티 더샵 2차는 중앙호수공원이 인접해 푸르른 자연 속

에서 쾌적한 생활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단지중앙에는 넓은 잔디광장 ‘더샵필드’와 어린이 물놀이장이 만들어지며, 조형폭포, 실개천, 캠퍼스 등도 설치된다.

또한 건강소책자와 화사한 테마 가로수길,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더샵팍’도 단지 내에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탁구장, 사우나, 작은 도서관, 독서실, 멀티룸 등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 있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에코시티 더샵 2차는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는 평면 특화설계도 선보일 예정으로 전 평형에 알파를 제공한다. /신광명 기자

‘에코시티 더샵 2차’는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덕진구 송천동 2가 117-9번지에 위치해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분양한 에코시티 더샵 1차는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508가구 모집에 11,315명이 몰리며 54.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에코시티는 전주 덕진구 송천동 일대 199만㎡ 부지에 1만 3,161가구, 3만 2,90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거특화 생태도시로, 오는 2020년 개발 완료로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문의전화 1661-0074) /신광명 기자

호남지방통계청

‘경제총조사’ 준비체제 들어감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11일 지방통계청 청사에서 2016 경제총조사 지역관리본부 현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생산 고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며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조사이다.

호남청은 2016 경제총조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경제구조 변화를 파악하게 된다.

또 온라인소평, 프랜차이즈, 사회적

비스(물류, 재활 등) 등 특성항목과 지역별·기업체단위별 맞춤형 세부통계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2016 경제총조사는 오는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되고 조사원이 관내 52만여 개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통한 참여도 가능하다. /신광명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곁을 지켜드리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